

석유화학보다 정밀화학 투자하라!

우리투자증권, 유가변동에 덜 민감 ... 호남석유화학은 우선추천?

우리투자증권은 석유화학업종의 경기 모멘텀 약화가 불가피하지만 관련종목들의 주가가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.

따라서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의견으로 <중립>을 제시하면서도 호남석유화학, 한화석유화학, 코오롱유화, SKC 등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<매수> 의견을 유지했다.

김영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“석유화학제품 가격이 2001년 이후 수요 증가와 유가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해왔으나 사이클상 2005년 정점에 이른 뒤 본격적인 신증설과 더불어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따라서 석유화학주의 경기 모멘텀도 연말로 갈수록 향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.

그러나 보통 석유화학주들이 해당업종 경기 하락시 시장평균 대비 20% 정도 할인돼 거래되지만 현재 할인율이 시장대비 50% 안팎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<저평가> 매력을 강조했다.

더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기조로 미루어 경기 하강기라 하더라도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.

따라서 상대적으로 유가변동에 덜 민감해 안정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금강고려화학, 삼성정밀화학, 동양제철화학 등 정밀화학과 보유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호남석유화학 등을 우선 추천주로 지목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01>